

##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소고

A Critical Essay on the Opening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이강업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Kang-Up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997년 1월을 기해 한국의 건축설계 시장이 곧 개방될 예정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 건축계와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관계는 자못 우려와 문제점으로서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의 상황은 설계개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인들로 하여금 건축설계 개방이 갖는 기존 국내 건축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근래, 외국의 웬만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한국의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며 일부 건축주들은 외국의 설계사무소와 국내 설계사무소와의 합작을 조건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있다. 더욱이 굵직한 건축설계경기의 심사에 임해보면 웬만한 규모의 현상설계에 출품된 작품중에는 순수히 외국에서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실감한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치루어진 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설계경기에서는, 응모작 19점 중

외국설계사무소와 합작한 작품이 무려 15점이나 되었고 입상작 4점과 입선작 4점중 국내 설계사무소의 단독 작품은 1점 뿐이었다. 물론 설계테마가 고속철도역사라는 특수시설이어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외국회사와 합작한 사무소 비율이 높았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주요 설계경기에서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앞으로의 주요 설계경기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하기 전에는 당선권에 들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단지 국내 건축 설계개방에 부정적인 측면만이 있다고만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세계화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 진출은 설계시장의 잠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건축계에 많은 자극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한국건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개방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사전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개방은 국내 건축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개방은 국내산업이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 때 무리없게 수용될 수 있다.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한국의 건축계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을 소화해 내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주로 질 보다는 양에 치중하였고 국내의 건축풍토가 한 건축가의 개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발전해 나갈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개성있는 국제적인 건축가를 양산해 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내의 건축교육도 선진국의 건축교육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과거의 기술교육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건축사면허를 따기 위한 유럽의 6년제 교육이나 미국의 대학원중심 교육에 비해 한국의 건축사 면허제도는 대학원교육을 장려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교육은 학부에서 끝난다. 고등교육이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건축가의 교육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건축설계의 질 향상보

다는 정책방향이 기술의 경쟁력으로 몰아 가는 인상을 준다. 특히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건축의 안전시공에만 역점을 두어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와 정책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국내의 건축실정에서 외국 설계사무소를 찾는 건축주가 늘어 가고 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유는 국내의 설계비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개성이 강한 이미지를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만한 국내의 설계사무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화점에서 외제브랜드가 판치는 세상에 건축이라고 국산품 애용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다 매스컴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기사가 자주보도 되면서 마치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하여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로 인해 우리 건축계에 미칠, 매우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선 건축에 하이테크의 응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서 선진기술의 도입이 수월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 설계사무소의 경영방식과 설계 발전 과정 등은 우리의 설계 관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세계화에 일조 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과 한국의 설계사무소간의 합작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합작이라면 어느정도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작금에는 일방적인 설계 의뢰를 합작이라고 한다. 설계실장들이 외국에서 팩스를 통해 보내주는 도면이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별로 낯설지도 않다.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면 설계를 구상하여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외국에 내어 주므로써, 실장들과 같은 국내의 중견 건축가들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이렇게 외부에 의존하다 보면 각 설계사무소들의 앞으로의 자발적인 경쟁력에 한계가 있게 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용병에 의존하다보면 후에 용병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게 되는 역사적 교훈도 되새겨 볼 만하다.

건축에 있어 기술력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성격이 반영된 건축공간이 모여 한 나라의 건축문화가 정립되며 이것이 나아가 문화를 상징하고 대변하게 된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자동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맹점은,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았던 외국의 건축가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전혀 다른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건축가들

간에 르 꼬르뷔제가 인도에 설계한 찬디가르가 현대건축의 역작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인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우수한 르 꼬르뷔제의 건축은 있되, 우수한 인도의 근대 건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운현궁 바로 옆에 대규모 미술관을 설계중에 있다고 해서 건축계 일부에서는 드디어 서울에도 볼만한 건물이 들어선다고 기대하고 있다. 게리가 훌륭한 건축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개성이 너무나도 강한 그의 건물이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에 들어서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 같다. 훌륭한 건물이란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 확립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으므로 건물 개체가 갖는 뛰어난 조형성 자체가 오히려 조화를 깨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건축에 있어서 국수주의적 자세를 고수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가 너무나도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그동안 세자르펠리와 같이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더러 있지만 이들의 작품이 특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도시문화와 대지가 갖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건축과 도시문화 정착은 누구보다도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건축가들에게 책임지어질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외국설계업체의 국내 시장 개방은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이러한 관계로써는 국내 건축계에 커다란 발전적인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더욱이 기업의 무분별한 외국 설계업체와의 작업은 국내건축문화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적 차원으로서 국내 대학의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의 설계교육 실정상 외국과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급한 정부의 행동과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행정적 조치들, 그리고 실무건축가들의 자구적 노력의 부족과 대학에서의 교육실정의 열악화 등 이상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초 두로 다가온 국내 설계시장 개방이라는 파도와 맞서게 된다. 건축문화의 신 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지 아니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한국 건축문화가 정립될 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